

# 전남도, GS 손 잡고 수산물 가정간편식 시장 평정 나선다

## 영화 '자산어보' 개봉 맞춰 전국 GS25 편의점에 전북 가공품 출시

전라남도가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을 담은 영화 '자산어보' 개봉에 맞춰 지역 특산품인 전북 가공품 판촉전에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수산물 가정간편식 시장 평정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도와 GS리테일은 전남산 전복을 가공해 개발한 가정간편식(HMR)을 전국 GS25 편의점 1만 3

천여 매장에서 일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영화의 흥행 보증 수표인 이준익 감독이 배우 설경구, 변요한 등과 함께 조선 순조(1814년) 때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을 흑백으로 담은 영화 '자산어보' 개봉일과 때를 같이 한 것이다.

수산물 가정간편식 출시는 코로

나19 영향으로 양식수산물 소비는 줄어든 반면 수산물 가정간편식 시장이 2016년 160억 원에서 2019년 340억 원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남도와 GS가 의기투합해 지난해 7월부터 준비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은 전복 간장비빔과 고추장비빔, 완도 광어조

림 등 총 3종으로 전국 GS더프레시(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GS25 편의점에 출시한 제품은 전복 간장과 고추장 비빔 2종으로 판매가는 개당 5천900원이다.

제품 홍보를 위해 GS편의점에서 제품 구매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자산어보 영화예매권 1인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옴뎀 전남튜브'를 통해 홍보콘텐츠 생중

계와 참가자 대상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양치 소금' 사은품 증정도 함께 진행한다.

앞으로 시장 공략을 위해 우럭 맑은탕과 전복해초무침을 추가로 출시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전남의 수산물을 맛보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수산물을 이용한 각종 기능성 제품과 소스류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물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수산물 양식업계의 판로개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렵인,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에 도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고품질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수입 수산물 의존도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 전남TP, 2021 제10회 광주전남 공동 무역 포럼 개최

4월 6일 12시부터 포럼, 기업지원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지역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제10회 광주전남 공동무역 포럼」을 4월 6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광주전남 공동무역포럼은 그간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수출성장 산업 발굴과 글로벌 시장 경제의 최신 정책 정보 교류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제10회 무역포럼에서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위기(Pandemic)속 지역 중소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 경제환경변화와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진화에 대한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학연 교수의 포럼, 2021년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및 중소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

된다.

전남테크노파크, 광주전남공동기청,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대학,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사전 참가 접수를 완료하였

당일 12시부터 진행되는 포럼

주제발표와 2021년 기업지원설명회 행사를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하여 참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비대면 정보공유를 진행한다. 유튜브 링크는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전남테크노파크 채널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포럼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코스피 ▲	3,113.65
코스닥 ▼	969.11
원·달러·환율 ▼	1,127.60
금리(국고채3년) ▲	1.15

##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 중국 본격 출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중국에서 본격 출범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국제 코루즈 터미널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나이트(Genesis Brand Night)'를 열고, 중국 고급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 론칭을 공식화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고급차 시장의 핵심 고객인 젊은 세대를 공략해 국내 최초의 글로벌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고급차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함이다.

중국 현지 주요 인사들과 미디어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제

네시스 중국 법인장 마커스 헨네(Markus Henne)의 주재로, 제네시스 브랜드 장재훈 사장의 축하 인사말과 제네시스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의 디자인 설명 등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현장에는 G80, GV80 등의

대형 럭셔리 세단 G80, 브랜드 첫 SUV GV80 등 대표 모델 앞세워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위해 브랜드 역량

실차도 전시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장재훈 사장은 "오늘은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며, "차별화된 가치를 원하는 중국 고객에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중국 법인장

마커스 헨네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동 등지에서 제네시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중국 론칭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확장에 또 다른 챕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네시스는 총 3천 5백여대의 드론을 상하이 황푸강(黄浦江) 상공에 띄워 브랜드 로고, 차량, 디자인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론칭 기념 행사도 마련했다.

향후 제네시스는 '역동적인 우아함'으로 대표되는 제네시스만의 디

자인 철학 등을 바탕으로 중국 고객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우선 대형 럭셔리 세단 G80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등 브랜드 대표 모델을 앞세워 중국 고급차 시장을 공략한다.

G80는 제네시스의 탄생을 이끈 상징적인 모델이며, GV80은 브랜드의 첫 번째 SUV 모델로 두 차종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앞서 제네시스는 작년 11월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에 참가해 두 모델을 공개, 중국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끈 바 있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중국에서 본격 출범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국제 코루즈 터미널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나이트(Genesis Brand Night)'를 열고, 중국 고급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 론칭을 공식화했다.

/제네시스 제공

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1대1 응대를 받으며 차별화된 구매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제네시스는 이날 중 상하이에 판매와 브랜드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제네시스 스튜디오 상하이'를 오픈

/이문수 기자

#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

국흥(國興) · 문흥(文興) · 여흥(餘興) · 감흥(感興)

장흥군